

마지막까지 배우로 살다간 '천생 연기자'

김영애, 췌장암 투병 끝 별세
 종영전까지 '월계수 양복점...' 촬영
 병원·촬영장 오가며 마지막 투혼
 차인표 "드라마 피해 안주려 최선"



대표작 드라마 '황진이'·영화 '변호인'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연기 혼을 불태웠던 배우 김영애가 9일 오전 10시58분 끝내 세상과 작별했다. 향년 66세.

고인의 외동아들 이민우 씨는 "어머니께서 한달 전께 열이 오면 후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못하시는 상태였다"라며 "오랜 기간 고생하시다 오늘 오전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이씨는 "암이 췌장에서 시작해 간과 림프 등으로 전이됐다"며 "그동안 불굴의 의지로 버티셨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지난 2012년 MBC TV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을 선고받았다. 청천 병력같은 일이었음에도 그는 주변에 이 사실을 숨긴 채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을 왕래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그는 이후 당시를 돌아보며 "고통을 참으며 허리에 끈까지 조여매고 연기했다"고 고백했다.

'해를 품은 달' 이후에도 그는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드라마와 영화를 떠나며 중흥무선 활동했다. 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 '메디컬 탑팀' '미녀의 탄생' '킬미 힐미' '미녀 보검' '닥터스'와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변호인' '우리는 형제입니다' '현기증' '카트' '허삼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인전상륙작전'이 그가 투병 중 출연한 작품이다.

이들 작품을 하면서 여러차례 고비가 왔지만 그는 매번 강한 정신력과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냈다.

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는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주인공 가족의 엄마 최귀자 역을 맡아 매 주말 시청자를 만났다.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라 많은 시청자가 놀라긴 했지만 그는 특유의 강단있는 모습으로 간간하고 고집이 센 양복점의 안주인을 살갑게 연기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0월 말 급작스럽게 병세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낙담 가까이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드라마 촬영 현장을 오갔다.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진통제로 버티며 마지막 에너지를 촬영현장에서 쏟아냈다. 주치의가 타이핑 촬영을 하는 게 무리라고 했음에도 50부 약속을 지키기 위

해 끝까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했다. 오로지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버티었다.

그러나 그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인기에 힘입어 4회 연장하는 데는 결국 참여하지 못했다. 제작진은 그를 배려해 최귀자가 남편과 함께 시골로 요양을 간 것으로 그렸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아버지' '형제의 강' '피도' '장희빈' '달려라 울엄마' '황진이' 등 드라마와 '삼개구리 만세' '실국' '미워도 다시 한번' 'W의 비극' '비내리는 영동교' '겨울 나그네' 등 영화로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한동안 TV 드라마에만 전념하던 그는 2009년 '애자'로 영화계에 복귀하고, 투병을 하는 도중에 다시 총무로의 주요 배우로 떠올랐다.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SBS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 대중상 여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코리아드라마어워즈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고인은 또한 성공한 황도 화장품 사업가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2001년 참도원을 설립하고 2004년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누적 매출 1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황도팩의 중금속 논란을 제기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참도원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

이 밝혀졌지만, 이 일로 마음 고생을 크게 한 그는 결국 사업에서 손을 뗐다.

김영애와 함께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6개월여 촬영하면서 투병 모습을 지켜봤던 차인표는 9일 "김영애 선생님께는 목숨을 걸고 연기하셨다"며 "말은 바 책임을 끝까지 하신 것에 고개가 숙여진다.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서서 편안히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인표는 김영애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드라마 촬영 초 김영애와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차씨는 "김 선생님께서 촬영 초 분장실에서 '나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50회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같이 일하는 제작진이나 연기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가 안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에 진통제를 맞다가 드라마 녹화하는 날에는 정신이 명료해야 한다며 진통제를 안 맞고 버티셨는데 그러느라 녹초가 되셨다"면서 "마지막 10주 정도는 정말 모든 것을 소진하시며 연기를 하셨다"고 덧붙였다.

또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김 선생님은 연기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선택하신 느낌을 들었다"며 "연기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위안이자 치료제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민우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발인은 11일. /연합뉴스



유아인



서인국

"군대 가기 힘드네"

유아인·서인국... 병역 처분·재검 날짜 기다리는 중
최진혁, 7개월만에 의병 전역...2년 간 공백기 가져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면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군대에 가겠다는데도 입대가 힘든 경우도 생긴다.

배우 유아인(31)은 무려 4차례 걸쳐 재검을 받았고 아직 4차 재검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

유아인은 2015년 12월, 2016년 5월과 12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잇따라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과거 영화 촬영 중 입은 부상과 골종양 진단 등이 겹치면서 나온 결과다.

세 차례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이 나오자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지만 골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유아인은 현재 tvN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의 주연을 맡아 촬영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제작발표회에서 "아픈 주제에 드라마를 찍는다고 말이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 군대에 가지 못하고 1년간 작품을 쉬었다"며 "그러다 '시카고 타자기'란 좋은 작품을 만나 촬영하고 있다. 건강에 무리되지 않게 잘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 만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5월 초께 병역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인국(30)은 지난달 28일 육군 헌역으로 경기도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소속사 첼피피쉬는 "귀가 사유는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이라고 밝혔다. 거골의 골연골병변은 발목 가장 위쪽에 있는 뼈(거골)의 연골이 손상돼 떨어지는 병으로 부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는 현재 집에서 재검 날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2015년 3월31일 헌역 입대했던 최진혁(31)은 무릎 연골손상으로 7개월 만에 의병 전역했다.

'무명'이었던 최진혁은 '응급남녀' '운명처럼 널 사랑해' '오만과 편견'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뒤늦게 상승세를 탔다. 인기가 가장 높았을 때 입대를 결심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조기 전역한 게 '꼬리표'가 돼 약 2년 간 공백기를 가져다.

지난달 25일 시작한 OCN '터널'을 통해 복귀한 그는 "욕심이 많아 어려운 액션을 다 소화하고 싶은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대역도 좀 쓰다 보니 속상한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SBS 뉴스 10 2017 마스터스 골프 FR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 불날	00 SBS 뉴스 10 2017 마스터스 골프 FR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SBS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제1차 중직선거정책토론회	10 좋은 아침
10	00 제19대 대선 공직선거정책토론회	40 지구촌 뉴스		00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1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19대 대선정책방송연설 (국민의당) 3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KBC 특집토론회 대선 D-30 민심의 향배는?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인 55 명인(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20 키즈 사이언스6(재) 55 파워배틀 외치카(재)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 똑! 키즈쿨 55 내친구 마더	00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55 감성론 고맙습니다(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토크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령전문목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완벽한 아내)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첫사랑)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절적드라마 (리셀 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일	10 초인가족 2017
12	30 101세의 프로젝트(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신문 아틀라스 (알프스산맥 이탈리아 돌로미테)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또 하나의 우주, 길 (알프스산맥 이탈리아 돌로미테)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기 셋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콩 3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미국역사기행 1부 보스턴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다)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봄나물 사무사부와 냉이갈매기)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쿵(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얼마 깨워라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1:30 한국기행 (부자의 비밀 1부 산으로 간다, 고기 잡으려)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힘 1~2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꼬마버스 타요 08:45 부릉! 부릉! 부릉!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특집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리얼강-행복(재) 13:40 까칠남녀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보 19:30 EBS 뉴스	21:50 EBS 다크 프라임 (아시아 원시 부족 탐험) 22:45 또 하나의 우주, 길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다운은 예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0일(음 3월 14일 丁卯)

子	48년생 기본적인 사항에만 충실 한다면 족하다. 60년생 난처한 입장에 놓여서 갈망질망하고 있는 형상에 놓인다. 72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큰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다. 84년생 사전에 대처하여 차질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3, 08	午	42년생 실리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54년생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절실하다. 66년생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치워야 한다. 78년생 화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 90년생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50, 38
丑	49년생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61년생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73년생 영원한 비밀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85년생 현행대로라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단계를 보완하라. 행운의 숫자 : 64, 55	未	43년생 분산되던 핵심에 집중하게 힘들어진다. 55년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분명히 알려. 67년생 합리성이 풍요로움을 도모하게 된다. 79년생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니라. 91년생 멋스럽다. 행운의 숫자 : 30, 18
寅	50년생 피곤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언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62년생 먼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 74년생 앞길에 구만리 같이 열리기 시작하느니라. 86년생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31	申	44년생 조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확실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56년생 활력소가 되어 주기에 충분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 68년생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80년생 가뭄에 주고받는 말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8, 72
卯	51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매달려야 해결될 문제라. 63년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개발하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사소한 것에 얽매다보면 큰일을 놓치는 법이다. 87년생 단력을 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4, 16	酉	45년생 여러 가지가 통합되리라. 57년생 기본적인 것의 파악에 충실해야만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69년생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81년생 조금 낮게 조정한다면 적응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8, 71
辰	52년생 시종일관 계속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 64년생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부터 가능해 볼 일이다. 76년생 인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대처하라. 88년생 매우 부담스러운 짐을 덜어 주는 이가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02, 86	戌	46년생 지금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니 마음 놓고 함께 하여도 무방하다. 58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70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될 가능성이 크다. 82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64, 52
巳	53년생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5년생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명확한 의사 표시를 꼭 해둘 필요가 있다. 77년생 새롭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89년생 상당한 고비가 따르며 시간이 갈수록 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5, 08	亥	47년생 평상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 한다면 당면 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겠다. 59년생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여 혼란스럽겠다. 71년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83년생 예리한 고집이 선행되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0, 1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